

2022 군무원 9급: 2022. 7. 16. 시행

지식형 문항 (13)	국어 문법 국어 규범 (10)	국어의 어휘: 2 형태론_단어의 형성: 1 통사론_높임 표현: 1 의미론_문맥적 의미: 1 사이시옷: 1 띄어쓰기: 2 표준어 규정: 1 로마자 표기법: 1
	어휘·한자 (3)	한자: 1 한자 성어: 2
지문 분석형 문항 (12)	독해 (8)	말하기의 종류와 원리_동의를 격률: 1 문장이나 문단 배열하기: 1 생략된 단어 추리하기: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1 제목 파악하기: 1 제시문과 일치하는 정보 찾기: 1 복합 문제: 2
	현대 문학 (2)	현대 시: 2
	고전 문학 (2)	가사: 1 고전 수필: 1

1.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난 달에 나는 딸도 만날겸 여행도 할겸 미국에 다녀왔어.
- ② 이 회사의 경비병들은 물 썰 틈없이 경비를 선다.
- ③ 저 사과들 중에서 좀더 큰것을 주세요.
- ④ 그 사람은 감사하기는 커녕 적게 주었다고 원망만 하더라.

정답: ③

해설: • 사과들V중에서(○): ‘-들’은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적고, ‘여럿의 가운데’의 뜻으로 쓰인 ‘중’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좀더V큰것을(○):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Tip 국립국어원에서는 ‘좀 더 큰 것을’과 같이 마지막 단음절어가 조사와 연결되는 경우 셋 이상의 단음절 단어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붙여 적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니 참고한다.

오답 풀이: ① • 지난V달(×) → 지난달(○): ‘이달의 바로 앞의 달’을 뜻하는 ‘지난달’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딸도V만날겸V여행도V할겸(×) → 딸도V만날V겸V여행도V할V겸(○): ‘겸’은 관형사형 어미 ‘-(으)르’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물V썰V틈없이(×) → 물썰틈없이(○): ‘물썰틈없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비유적으로) 조금도 빈틈이 없이’라는 뜻으로 물을 부어도 썰 틈이 없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④ 감사하기는V커녕(×) → 감사하기는커녕(○): ‘느커녕’은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2. 다음 중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

- ① 교육자답다 ② 살펴보다
③ 탐스럽다 ④ 순수하다

정답: ②

해설: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살펴보다’는 ‘살피 + 어 + 보다’와 같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나머지 ①·③·④는 모두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① 교육자답다: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답다’가 붙은 파생어이다.

③ 탐스럽다: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스럽다’가 붙은 파생어이다.

④ 순수하다: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하다’가 붙은 파생어이다.

3. 다음 중 사자성어가 가장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건강부회(牽強附會) 하지 말고 타당한 논거로 반박을 하세요.
- ② 그는 언제나 호시우보(虎視牛步) 하여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 ③ 함부로 도청도설(道聽塗說)에 현혹되어 주책없이 행동하지 마시오.
- ④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을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여기자.

정답: ④

해설: ‘轉禍爲福(구를 전, 재앙 화, 할 원, 복 복)’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이라는 뜻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다 / 그때 학교를 그만둔 게 요즘에는 전화위복이 되고 있어요’와 같이 앞에 재앙, 근심, 걱정이 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것이 오히려 잘되었거나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④은 사자성어가 적절하게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牽強附會(끌 견, 강할 갠, 붙을 부, 모일 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
기에게 유리하게 함.

- ② 虎視牛步(범 호, 불 시, 소 우, 걸음 보):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
- ③ 道聽塗說(길 도, 들을 청, 진흙 도, 말씀 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오래된 나사여서 마모가 심해 빠기 어렵다.
- ② 평소 절차탁마에 힘써야 대기만성에 이를 수 있다.
- ③ 정신을 수양하고 심신을 연마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 ④ 너무 열중하여 힘을 주다 보니 근육이 마비되었다.

정답: ④

해설: ‘신경이나 근육이 형태의 변화 없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일 / 본래의 기능이 둔하여지거나 정지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마비’는 ‘痲痺(저릴 마, 저릴 비)/麻痺(삼 마, 저릴 비)’로 쓴다.

나머지 ①·②·③은 모두 ‘磨(갈 마)’를 쓴다.

오답 풀이: ① 磨耗(갈 마, 빌 모): 마찰 부분이 닳아서 없어짐.

② 切磋琢磨(끊을 절, 갈 차, 쪼을 탁, 갈 마):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③ 研磨(갈 연, 갈 마)/練磨[익힐 연(련), 갈 마]/鍊磨[불릴 연(련), 갈 마]: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음.

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 ①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 ② 한번은 네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 ③ 고 녀석, 울음소리 한번 크구나.
- ④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불러 볼까?

정답: ①

해설: 한번(×) → 한√번(○): ‘한번’이 일의 횟수를 나타내어 ‘두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므로 띄어 쓴다.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한번’은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한번 옆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라는 문장에서 ‘한번’을 ‘두 번’으로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을 붙여 쓰지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하자”라는 문장에서 ‘한 번’은 ‘두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므로 ‘한 번’으로 띄어 쓴다.

오답 풀이: ② 지난 어느 때나 기회

- ③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 ④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으며,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됐거나 힌두, 불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와 근원적으로 차별되지 않으며, 그의 존엄성은 다른 동물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차등 지을 수 없다.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다. 미국 원주민이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자연은 모든 생성의 원천이자 젖줄이다. 그것은 대자연 즉 산천초목이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선하고 풍요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무한히 조용하면서도 생기에 넘치고, 무한히 소박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거룩한 모든 것들의 모체이자 그것들 자체이다. 자연은 영혼을 가진 인류를 비롯한 유인원, 그 밖의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 및 신비롭고 거룩한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자 거처이며, 일터이자 휴식처이고, 행복의 동지이며, 영혼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던 땅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인 동시에 그 원리이며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 의미이기도 하다. 자연은 생명 그 자체의 활기,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의 표상이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이며 모든 행동의 도덕적 및 실용적 규범이며 지침이며 길이다. 자연은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6. 다음 중 위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낭만주의자(浪漫主義者) ② 자연주의자(自然主義者)
③ 신비주의자(神秘主義者) ④ 실용주의자(實用主義者)

정답: ②

해설: 글쓴이는 자연의 속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터전이자 원리이며,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주의자’이다.

7. 위 글의 구성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괄식 ② 양괄식
③ 미괄식 ④ 중괄식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서두에서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도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의 긍정적인 속성을 열거한 뒤, 마지막에서 자연은 인간이 정복하고 활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사하고 보존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글쓴이의 궁극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마지막에 주지를 전하는 미괄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 미괄식(尾括式): 『문학』 문단이나 글의 끝부분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

오답 풀이: ① 두괄식(頭括式): 『문학』 글의 첫머리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

② 양괄식(兩括式): 『문학』 글의 중심 내용이 앞부분과 끝부분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문장 구성 방식

④ 중괄식(中括式): 『문학』 글의 중간 부분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

8. 다음 중 아래의 글을 읽고 추론한 라캉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라캉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의 거울 단계에서, 자기와 자기 영상, 혹은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 관계에 새로운 타인, 다시 말해 아버지, 곧 법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삼자 관계, 즉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형성은 제3자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섬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말하자면 구조란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에게 있어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이다.

라캉에게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그는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라캉의 경우,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고, 또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진술이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타자로부터 발원되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무의식은 주체에 끼치는 기표의 영향’이라고 라캉은 말한다.

이런 연유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논리가 라캉에게 성립된다. 의식의 차원에서 ‘내

가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상이다. 실상은, 나의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된다. 내가 스스로 원한 욕망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
- ②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
- ③ 대중매체의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 ④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옳지 않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라캉에 의하면, 양자 관계에 타인이 개입하는 상징적 질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은 구조된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며, '그 구조는 의식되지 않은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 인간의 행위를 규정한다' 따라서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가 새로운 문화 질서를 창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③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나의 진술이나 욕망은 타자의 진술이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된다. 따라서 타자의 욕망인 대중매체의 광고는 나, 즉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라캉은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나의 사유가 있는 곳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라캉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명제가 된다.

9. 다음 중 아래 시의 주제로 가장 옳은 것은?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현란한 광채가 흘러
양양한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인다.

한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찬연히 피어난 백일(白日)의 환상을 따라
달음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같이
황색 꽃잎 금빛 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아! 의욕의 씨 원광(圓光)에 묻힌 듯 향기에 익어 가니

한줄기로 지향한 높다란 꼭대기의 환희에서
순간마다 이룩하는 태양의 축복을 받는 자
늠름한 잎사귀들 경이(驚異)를 담아 들고 찬양한다.

-김광섭, 〈해바라기〉

- ① 자연과 인간의 교감
- ② 가을의 정경과 정취
- ③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
- ④ 환희가 넘치는 삶

정답: ③

해설: 김광섭의 <해바라기>는 정열적인 해바라기의 모습을 표현한 시이다.

1연에서는 해바라기가 핀 가을날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2~3연에서는 해바라기와 해바라기 씨를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는 해바라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있다. 즉 이 시에서는 해바라기의 강렬한 모습을 통해 생명에 대한 강한 의욕과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이 주제로 가장 옳다.

오답 풀이: ② 1연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묘사되고 있으나 중심 제재인 '해바라기'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가을의 정경과 정취'는 이 시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10. 다음 중 아래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정치권의 통합 방정식', '경영에서의 성공 방정식', '영화의 흥행 방정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된다. 수학의 방정식은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문자의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합 방정식의 경우, 통합을 하는 데 여러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라 통합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으므로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적절하다.

그런데 방정식은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 '국내·국제·남북 관계의 3차 방정식'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무관하다. 변수가 1개라도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변수가 많아도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 m원 방정식으로, 상황의 복잡도에 따라 n차 방정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 즉 일반해가 존재하므로 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상이라면 5차 방정식 이상이라는 표현이 안전하다.

- ①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
- ② 실생활에서의 수학 공식의 적용
- ③ 방정식의 정의와 구성 요소
- ④ 수학 용어의 추상성과 엄밀성

정답: ①

해설: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분야에서 애용되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쓰인 경우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바른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은 방정식을 예로 들어 수학 용어를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하자는 견해를 전한 글이므로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이 제목으로 가장 옳다.

11. 다음 중 ㉠~㉣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굴절되어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망막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상이 맺힘으로써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 이것을 근시라고 한다.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망막의 (㉠)에 맺혔던 초점이 (㉡)으로 이동하여 망막에 초점이 맺혀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지점보다 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조절 능력에 의하여 계속 잘 보인다.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의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으로 멀어져 가까운 곳의 잘 보

이는 거리가 짧아지고 근시의 정도가 약하면 꽤 먼 곳까지 잘 볼 수 있다.

㉠ ㉡ ㉢

- ① 앞쪽 - 뒤쪽 - 앞쪽
③ 앞쪽 - 뒤쪽 - 뒤쪽

㉦ ㉧ ㉨

- ② 뒤쪽 - 앞쪽 - 앞쪽
④ 뒤쪽 - 앞쪽 - 뒤쪽

정답: ①

해설: 1문단에 따르면, 근시인 눈에서 먼 곳의 물체를 볼 때는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맺히게 된다. 그런데 그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초점은 뒤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에는 ‘앞쪽’이, ㉡에는 ‘뒤쪽’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또한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므로, ㉢에는 ‘앞쪽’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12. 다음 중 ㉠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 참, 세상 일두…….”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댁두 말이 아니어. ㉠ 그 많은 전답을 다 팔아 버리구, 대대루 살아오든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드니, 또 악상꺼지 당하는 걸 보면…….”

남곶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기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애 둘 있든 건 어려서 잃구…….”

“어쩌든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 , <소나기>

① 雪上加霜

② 前虎後狼

③ 禍不單行

④ 孤掌難鳴

정답: ④

해설: ㉠은 좋지 않은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키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孤掌難鳴(외로울 고, 손바닥 짚, 어려울 난, 울 땡)’이다. ‘孤掌難鳴’은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다.

* 악상(惡喪):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사람의 상사. 흔히 젊어서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는 경우를 이른다.

오답 풀이: ① 雪上加霜(눈 설, 위 샅, 더할 갠, 서리 샅):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② 前虎後狼[앞 전, 범 호, 뒤 호, 이리 랑(냥)]: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까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는 뜻으로, 재앙이 끊일 사이 없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禍不單行(재앙 환, 아닐 불, 흠 단, 다닐 행): 재앙은 번번이 겹쳐 옴.

13. 밑줄 친 말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① 이번 달은 예상외로 가뭇돈이 많이 나갔다.

② 앞뒤 사정도 모르고 고자질을 하면 안 된다.

③ 불이 나자 순식간에 장내가 안수라장으로 변했다.

④ 두통이 심할 때 관자놀이를 문지르면 도움이 된다.

정답: ③

해설: ‘아수라장(阿修羅場)’은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는 그런 상태’의 뜻으로, 한자어만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나머지 ①·②·④는 모두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가외돈(加外돈): 정해진 기준이나 정도를 넘어서는 돈

② 고자질(告者질):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알려바치는 짓

④ 관자놀이(貫子놀이): 귀와 눈 사이의 맥박이 뛰는 곳. 그곳에서 맥박이 뛸 때 관자가 움직인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14. 다음 중 아래의 작품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은?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 밝기 심근 매화 두세 가지 띄여세라
굿득 냉담(冷淡)헌디암향(暗香)은 므스일고
황혼의 달이 조차 벼마터 빗최니
늦기난 닷 반기난 닷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매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쫓디고 새 님 나니 녹음이 싹렸논디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뷔여 잇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굿득 시름한 디날은 엇디 기뻐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색선 필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ㄱ니와 제도도 ㄱ줄시고
산호수 지게 우희백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브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천리 만리 길히 뉘라셔 촌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 정철, 〈사미인곡〉

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피잇니
녀던 길 알피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② 삼동에 벼웃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뉘도 썬 적이 없건마는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 겨워 하노라

③ 뫏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디

자시는 창 밝기 심거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 님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④ 반중(盤中) 조홍(早紅) 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유자 안이라도 품엄즉도 헉다마는
품어 가 반기 리 업슬새 글노 설워헉는다

정답: ③

해설: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은 사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그리면서 변함없는 연군의 정을 노래한 가사이다.

제시문에서는 ‘매화’와 ‘옷’을 임에게 보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여기서 ‘매화’와 ‘옷’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며, 이를 임에게 전달하려는 모습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및 주제와 가장 비슷한 것은 ③이다. ③에서 화자는 자신의 분신을 의미하는 ‘뫼버들’을 임에게 보내고 싶다 하면서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성현들을 따라 학문 수양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임금의 승하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④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서러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15.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발가숭이

② 깡충깡충

③ 뽕정다리

④ 오뚝이

정답: ②

해설: 깡충깡충(×) → 깡충깡충(○): 제시된 단어는 모두 <표준어 규정>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의 예이다. ‘깡충깡충(×)’은 ‘깡충깡충(○)’과 같이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나머지 ①·③·④도 모두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예에 해당한다.

16.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을 포괄하여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주체 경어법은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면 일률적인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쓴다. 또한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용언을 사용해야 한다.

①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② 어머님께서 돌아보시고 주인에게 부탁하셨다.

③ 선생님께서 책을 펴며 웃으셨다.

④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가셨다.

정답: ④

해설: 주체 높임법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여러 개의 용언이 나타날 경우에 ‘-시-’의 쓰임,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의 쓰임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례를 찾는 문제이다.

④는 ‘주무시고’에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인 ‘주무시다’가 사용되었고, ‘가셨다’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주무시고 가셨다’의 경우, ‘자다’에 대한 존경의 어휘가 ‘주무시다’ 처럼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존경의 어휘를 쓰고 함께 나타나는 다른 서술어에 ‘-시-’를 붙여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편찮으세요. 편찮으시다'는 '편찮다'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어 주체 높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특수 어휘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편찮다'를 높임의 특수 어휘로 보고 여기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쓰는 경우를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돌아보시고, 부탁하셨다: 선어말 어미 ‘-시-’만 사용되었고,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퍼며 웃으셨다: ‘웃으셨다’에 선어말 어미 ‘-시-’만 사용되었고,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인 ‘웃으셨다’에만 선어말 어미 ‘-시-’를 썼다.

17. 아래의 글에 나타나지 않는 설명 방식은?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인다. 뉴스의 경우, 앵커가 기사를 소개할 때에는 앵커의 왼쪽 위에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을 추려 제목 자막을 쓴다. 보도 중간에는 화면의 하단에 기사의 제목이나 소재목을 자막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 자료도 자막으로 보여준다.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 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영화의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크레딧 그리고 번역 대사가 전부이다. 이는 모두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된다. 번역 대사는 더 빙하지 않은 외국영화의 대사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텔레비전에서는 영화에서 쓰는 자막을 모두 사용할 뿐 아니라 각종 제목과 요약 내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청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말과 감탄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음성으로 전달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끔 자막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 ① 정의 ② 유추 ③ 예시 ④ 대조

정답: ②

해설: 2문단에서 자막을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 주는 글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뉴스를 예로 들어 텔레비전 자막에 대해 설명하고, 텔레비전 자막과 영화의 자막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 그러나 생소한 대상을 익숙한 대상을 통해 설명하는 유추의 방식은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8. 다음 중 (가)~(다)를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공격적인 환경보호 조치들을 취해왔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살충제와 독성 화학물질의 확산, 동식물의 멸종 위기 등을 우려한 각국의 정부들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간 활동이 야생 및 원시 지역에서 만들어 낸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

(가)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는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낭비한 것들도 상당수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

(나) 이 중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테면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과 수백만 가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기 오염원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존의 오래된 오염원의 수명이 길어져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 ① (나) → (가) → (다) ② (나) → (다) → (가)
 ③ (다) → (가) → (나) ④ (다) → (나) → (가)

정답: ①

해설: 세계 각국이 실시한 환경보호 조치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한 글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공격적인 환경보호 조치들을 취해왔다. → (나) 이 중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 (가) 그러나 이러한 규제 중 일부는 (환경)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 → (다) 환경보호 규제가 환경 문제를 악화시킨 사례

1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 윤동주, 〈슬픈 족속〉

- 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②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 ③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 ④ 의(義)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습니다

정답: ④

해설: 윤동주의 〈슬픈 족속〉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슬픔을 노래한 시이다.

‘흰 수건, 흰 고무신, 흰 저고리 치마, 흰 띠’는 모두 흰옷을 입고 흰색을 숭상한 ‘백의민족(白衣民族)’, 즉 우리 민족을 대신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서 표현하는 수사법’을 환유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환유법이 사용된 것은 ④이다. ④에서는 옳은 일을 위해서는 극단의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를 ‘칼날을 밟습니다’로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에서 ‘~같이’의 표현을 사용해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연결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나의 마음’을 ‘고요한 물결’에 빗댄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③ 무생물인 ‘파도’를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20. 밑줄 친 말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배가 고파서 공기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 ② 선출된 임원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하였다.
- ③ 사고 뒤처리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 ④ 이메일보다는 손수 쓴 편지글이 더 낫다.

정답: ①

해설: 공기밥(×) → 공깃밥(○): ‘공깃밥’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② 인사말(○): ‘인사말’은 사이시옷이 나지 않는 단어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③ 뒤처리(○): 뒷말이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될 때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④ 편지글(○): ‘편지글’은 사이시옷이 나지 않는 단어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21. 다음 중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고 말하나 그래서가 아니라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린 것이다.

나의 집이 있는 산속 바로 문 앞에 큰 냇가 있다. 해마다 여름철 폭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냇물이 갑자기 불어나 늘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를 듣게 되어 마침내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어 버렸다.

나는 문을 닫고 드러누워 그 냇물 소리를 구별해서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깊숙한 솔숲에서 울려 나오는 솔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린다.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격분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뭇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교만한 것처럼 들린다. 수많은 축(筑)이 번갈아 울리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노기에 차 있는 것처럼 들린다. 별안간 떨어지는 천둥 같은 소리, 이 소리는 놀란 듯이 들린다. 약하기도 세기도 한 불에 찻물이 끓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분위기 있게 들린다. 거문고가 궁조(宮調)·우조(羽調)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는 듯이 들린다. 종이 바른 창문에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회의(懷疑)스러운 듯 들린다. 그러나 이 모두가 똑바로 듣지 못한 것이다.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 만들어 낸 것일 따름이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 ① 직유와 은유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였다.
- ②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 ③ 일상에서의 경험을 자기 생각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④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하여 서술하였다.

정답: ②

해설: 박지원의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는 강을 건넌 체험을 바탕으로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이끌어 낸 기행 수필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르게 들리는 냇물 소리는 모두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 만들어 낸 것이라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②는 ‘세심한 관찰’ 즉 감각(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 〈일야구도하기〉 전체에서 글쓴이는, 감각과 외물에 현혹됨을 경계하고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여름철 폭우로 불어난 냇물 소리를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에 빗대 표현(은유)하고 있다. 또한 ‘솔바람 같은 소리,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뭇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등에서 ‘~같은, ~듯한’ 표현(직유)을 통해 냇물 소리를 묘사하고 있다.

③ 글쓴이(‘나’)는, 산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냇물 소리를 들었던 경험을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린 것’이라는 생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라는 어떤 사람의 견해에 대해 글쓴이는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린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2. 밑줄 친 ‘보다’의 활용형이 지닌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
- ②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사람은 없다.
- ③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 ④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우산을 놓고 나왔다.

정답: ②

해설: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다른 것을 찾는 문제이다.

‘손해를 보면서’의 ‘보다’는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의 의미이다. 나머지 ①·③·④의 ‘보다’는 모두 ‘대상을 평가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23. 다음 중 ‘을’이 ‘동의의 격률’에 따라 대화를 한 것은?

① 갑: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을: 무슨 일이지요?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② 갑: 글씨를 좀 크게 써 주세요.

을: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③ 갑: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을: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대로 도와 드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④ 갑: 여러 침대 중에 이것이 커서 좋는데 살까요?

을: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 그런데 좀 커서 우리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답: ④

해설: 동의의 격률이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의 격률에 따른 것은 ④이다. ④에서 ‘을’은 일단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다’라며 갑의 의견에 동의하여 일치점을 극대화한 다음 ‘그런데 좀 커서 ~ 않을 것 같아요’라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을’은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라고 말하며 ‘갑’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고 있다.

②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데’에서 ‘을’은 잘 듣지 못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라는 ‘관용의 격률’을 따른 것이다.

③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서 ~ 걱정입니다’에서 ‘을’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극대화하라는 ‘겸양의 격률’을 따른 것이다.

24. 아래의 글에서 밑줄 친 단어들 중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은?

절간의 여름 수도(修道)인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면 스님들은 바람을 메고 바리를 들고서 동냥 수도에 나선다. 이 동냥이 경제적인 구걸로 타락된 적도 없지 않지만 원래는 중생으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 기회를 줌으로써 업고(業苦)를 멸각시키려는 수도 행사였다.

① 동냥

② 구걸

③ 중생

④ 자비

정답: ①

해설: 『불교』 승려가 시주(施主)를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일. 또는 그렇게 얻은 곡식'을 뜻하는 ‘동냥’은 고유어이다. 나머지 ②·③·④는 모두 한자어이다.

오답 풀이: ② 구걸(求乞): 돈이나 곡식,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뵈.

③ 중생(衆生): 많은 사람 / 『불교』 모든 살아 있는 무리

④ 자비(慈悲):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 『불교』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함.

25. 다음 중 밑줄 친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내 이름은 복연필이다.
어제 우리는 청와대를 다녀왔다.
작년에 나는 한라산을 등산하였다.
다음 주에 나는 북한산을 등산하려고 한다.

- ① 복연필 - Bok Nyeonphil
- ② 청와대 - Chungwadae
- ③ 한라산 - Hanrasan
- ④ 북한산 - Bukhansan

정답: ④

해설: 북한산 Bukhansan(○):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오답 풀이: ① 복연필(인명) Bok Nyeonphil(×) → Bok Yeonpil(○):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표’은 ‘p’로 적는다. 다만 로마자 표기법 제 7항에 따라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② 청와대 Chungwadae(×) → Cheongwadae(○): ‘ㅈ’는 ‘eo’로 적는다.

③ 한라산[할:라산] Hanrasan(×) → Hallasan(○):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ㄹㄹ’은 ‘ll’로 적는다.